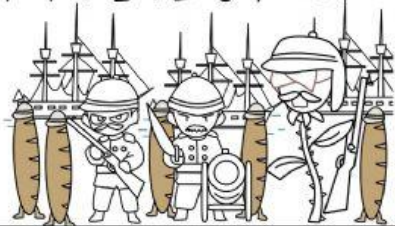


◎프랑스의 침략: ()

- : 여러 나라가 조선과 () 관계를 맺을 구실을 찾고 있었음
- 프랑스는 1866년 통상을 요구하며 ()를 침략함
- 조선이 군대를 보내자 프랑스군은 물러가면서 강화도의 귀중한 ()과 무기, 곡식 등을 약탈해감
- 프랑스가 약탈해간 문화재: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 도서관 창고에서 () 도서 발견. 이 중 『의궤』는 ()의 결혼, 장례, 건축 등 당시 조선 ()이 치른 행사의 구체적 모습이 기록된 귀중한 자료. 2011년 프랑스에서 ()년마다 다시 열리는 형식으로 돌려받음



◎미국의 침략: ()

- 1871년 미국이 군함을 이끌고 통상을 요구하며 ()를 침략함
- 조선군이 20여 일간 강력히 저항하여 물러갔으나 이 과정에서 ()가 함락 되고 ()장군 등 많은 사람들이 희생됨
- 미국에게 빼앗긴 (): 장수 수(帥)가 새겨진 (). 미국에서 빌려 오는 조건으로 현재 강화 역사 박물관에 보관 중



◎통상수교 거부 정책

- :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을 겪은 대원군은 한양과 전국 각지에 ()를 세워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알림
- (): "외세가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"
- 이와 반대로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()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김



◎일본의 침략: () 조약

- 1875년 () 초지진에 일본군 군함이 허락 없이 다가와 조선이 그 주변에 경고의 대포를 쏘
- 그러자 일본 군함은 초지진을 ()하고 영종도에 ()함
- 이 사건을 구실로 일본은 조선에 군함을 보내 ()을 요구함
- ▶ 조선 내부 상황: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조선의 ()을 바라는 요구가 높아짐
- 조선은 일본의 압박으로 결국 강화도에서 일본과 조약을 맺고 ()함
- : () 조약



◎강화도 조약

- 외국과 맺은 최초의 () 조약이자 ()한 조약
- 이 조약 이후 조선은 서양의 다른 나라들과도 교류를 시작함